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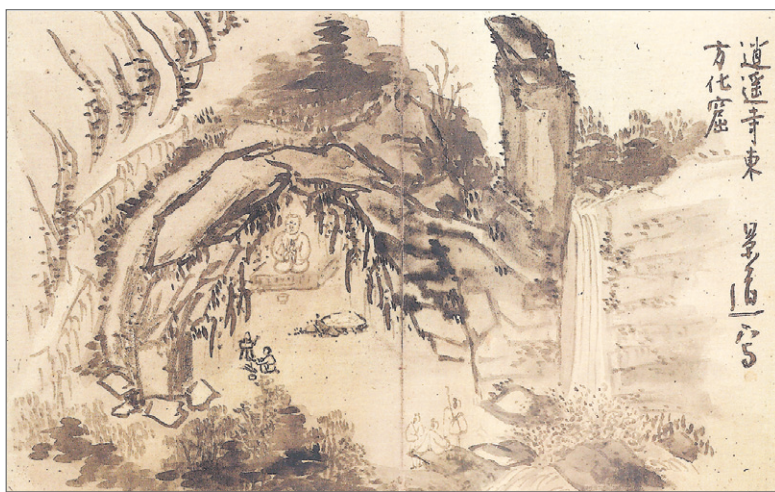
소묘사 방화굴

옛 그림 속 이야기

한 잔의 차 속에 평등사회 이상 담아

유명한 명승지는 그곳을 다녀간 명사와 그들이 남긴 자취로 인해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적들이 쌓이게 되면 명승지는 지리적 장소의 가치를 넘어 인문학적 함의마저 내포하게 된다. 명승지를 찾는 경험은 승경의 감상 뿐 아니라 이곳을 다녀간 선인(先人)들과 동일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이들을 기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명승·명소 중에는 차와 관련이 깊은 곳도 있다. 지금의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의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자재암은 원효가 654년(무열왕 1)에 창건한 암자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던 명수(茗水)가 나던 곳이다. 차를 애호했던 원효는 전국 곳곳에 많은 절을 지었는데 그때마다 절에는 석간수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 중 하나인 자재암은 원효가 차를 마시며 수행하던 장소로 이름이 알려져 명승지가 됐고 이후 고려는 물론 조선 시대까지도 시인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효가 절을 창건하고 500여 년이 지난 후, 고려시대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이곳을 찾아 원효정의 샘물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윤제홍 '소묘사 방화굴', 1812년경, 지본수묵, 26.2x41.4,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산을 따라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循山渡危橋  
밭을 포개며 좁은 길 걸었네. 斃屐行線路  
수 길이나 되는 절벽에 上有百仞巖  
원효가 절을 지었네 曉聖曾結宇  
신령한 자취는 아득히 어디에 있는가 靈蹤渺何處  
초상만이 흰 비단 폭에 남아있구나 遺影留縑素  
차 끓이던 샘에 맑은 물이 고여 茶泉貯寒玉  
마셔보니 젓갈이 맛있게. 酌飲味如飴  
이곳에는 원래 물이 없어서 此地舊無水  
스님들이 거처하기 어려웠는데 釋子難棲住  
원효가 와서 거처하시니 曉公一來寄  
맑고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아났네 甘液湧靈竇  
(역: 박동춘)

이규보는 원효의 초상을 바라보며 그의 자취를 추억하고 샘물을 마시며 원효의 자재무에(自在無礙)한 삶을 체험해 본 것이다. 매사에 걸림 것 없이 자유로웠던 다인(茶人) 원효의 명성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 들어 산수기행문화가 유행하면서 이곳을 찾는 문사가 많았고 더러는 자재암을 그림에 옮겨 기념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후기의 문인 윤제홍(尹濟弘, 1764~?)은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유람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화첩에 담았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학산묵회첩(鶴山墨數帖)>에는 '소묘사 방화굴'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 윤제홍이 1812년경에 자재암을 유람한 후 그린 것이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폭포와 절벽 위로 우뚝 솟은 바위가 표현돼 있고, 그 아래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감상하는 세 명의 문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의 왼쪽, 불상이 모셔진 감실 안에는 원효정과 함

께 이 샘물로 차를 마시는 동자가 보인다. 그런데 동자 앞에는 빨간머리 쓴 나뭇가지들이 놓여있고 화로 또한 중국화보와는 다른 표현으로 실제 조선의 다동이 차를 마시던 생생함이 전해진다. 전체적으로 스케치 같은 간략한 구성과 필법을 특징으로 하는 이 그림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킨 구도 속에 실경의 요체만을 구현해서인지 맑고 담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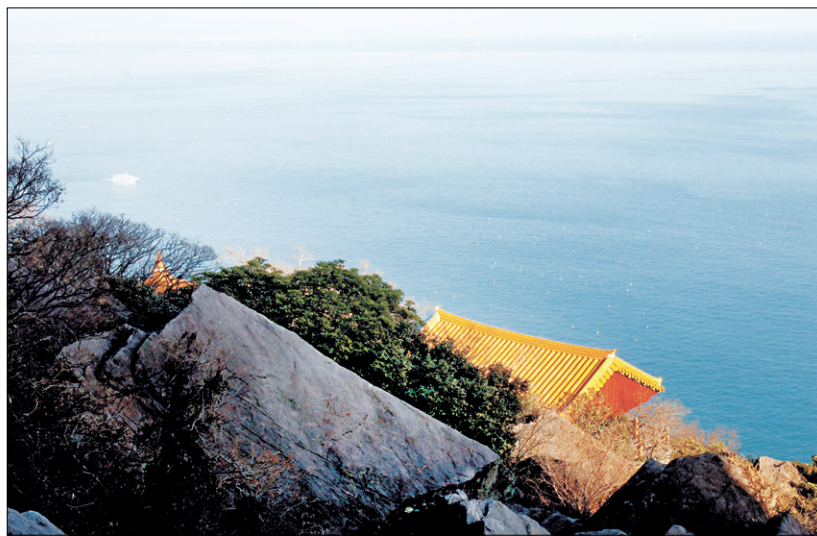
애초에 적박했던 자연환경에 원효가 터를 잡아 자재암을 세우고 수행과 차(茶)라는 화두를 부여하자 후대 많은 문사들은 이곳을 찾아 세월을 거슬러 원효대사의 뜻을 세웠다.

이규보는 샘물의 맛을 시경으로 표현했고 윤제홍은 그곳을 그림 속에 남겨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당시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처럼 원효대사로부터 시작된 자재암의 역사는 긴 세월동안 그 땅에 정신적 깊이를 아로새기고 다시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18 항일암의 추억



구급 20일, 여수 항일암에 불이 났다. 새벽에 도랑을 덮친 불은 황금단청불사를 마친지 석 달밖에 안 된 대웅전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매일 아침 햇살에 빛나던 황금빛 대웅전은 그 날 아침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1년 전 일출을 보기위해 항일암에 갔을 때 대웅전은 황금단청불사 중이었다. 그 때 장막에 싸인 대웅전을 바라보며 마당으로 밀려든 아침 태양에 마음껏 빛나는 대웅전을 상상했다. 낙성 후에 다시 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어느 날 옥지의 끝에서 날아든 슬픈 소식이 1년 전 장막 속에 서있던 금빛 대웅전마저 기억 속에서 빼앗아 갔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슬픈 아침이었다.

옛 판화의 세계

영사 스님이 연잎만을 먹다  
영사식하(甞師食荷)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석영사란 스님이 3일간 죽어있는 동안 저승을 다녀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판각한 작품이다. 저승에 끌려와 고통 받는 지옥중생의 모습과 제왕의 모습을 한 열라대 왕으로부터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것을 판결 받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사 스님은 피양 사람으로 웅기 원년에 산사에 거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마쳤는데, 몸은 따뜻하고 편안한 모습이 관하게 잠든 사람 같아 대중들이 관에 넣을 생각을 못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대중들은 놀라 그간의 상황을 묻자 영사 스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본문에 실려 있다. "나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서 판관을 만났더니 판관이 말하기를 '화상의 수명은 아직 목이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라의 녹을 먹었기에 목숨이 다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한 뒤 관리를 불러 다시 조사해 보게 했다. 조사를 마친 관리가 말하기를 '오직 마른 연 잎사귀 석 섬만이 있기에 장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판관은 다시 한 사람에게 명해 나를 인도해 저승세계를 순력하며 구경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곧 한 문안에 들어

서니 몇 채의 전각이 보였으며 전각에는 각기 편액이 있었다. 걸어서 한 전각에 이르니 관면을 갖춘 임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립해 이승에 있을 때 그 삶이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다른 전각들은 어두컴컴했는데 오직 고통 받는 소리만이 들렸고 사자가 인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은 웅남되지 않았다.

다시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니 판관정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잘 보내 드려라! 스님은 돌아가시기든 오직 공덕경을 많이 전념하시오!' 라고 하기에 내가 공덕경을 묻자 판관이 말하기를 '금강반아바라명경입니다. 이 경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중생들을 구제해 고통을 뽑아주는 공덕이 있어 비교할 경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러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경전에 많이 전해지는 것은 선행을 실천해 극락왕생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현재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시가 있는 도량

배개가 수다스럽다

배갯속, 나의 배갯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머리가 닿기만 하면  
금방  
배개는 수다스러워진다  
잠을 자려고 하면, 배개가  
눈썹을 꿈추세우고  
냄새 맡는 개처럼 툭툭대며  
끈적이는 말로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의 실핏줄과 배개의 실핏줄이  
합선되었는지  
잠을 잘 수 없다  
배개는  
나의 숨소리 떨림에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  
워서  
지난날의 생채기들을 들추어내면서 간혹이나  
간혹이나

-오형근, <환한 빈자리>에서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영사식하(甞師食荷),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상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연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지선, 무생, 무풍, 천풍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